

“광주형 일자리 성공시키자” 시민운동 확산

“현대차 광주공장 설립 ... 아이들 미래 위해서라도 협력하라”
시민단체 이어 교사·학생·학부모들까지 시·노동계에 호소

광주시, 시민 여론조사 추진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한 현대자동차 완성차 광주 공장 설립이 무산 위기에 몰리면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광주시, 노동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 교육계, 정치계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까지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해 적극 나서면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한 시민운동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광주시도 이 같은 시민·사회 단체의 움직임에 따라 조만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골든 타임’인 10월말까지 공장 설립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15일 광주지역 직업계 고교 13곳의 ‘학생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교사 동아리 취업부장들과 학부모들은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졸업을 목전에 둔 아이들에겐 취업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질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면서 “새 일자리를 만드는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은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특히 직업계 고교에서 직·간접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선택지가 한 가지 늘어나는 셈”이라면서 “우리 학생을 비롯한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해 고향을 떠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송원여상 김재호 교사는 “광주시와 노동계, 그리고 현대차가 끝까지 책임감을 가

지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줄길 요청한다”면서 “지역 사회의 일원이자, 아이들의 취업을 함께 고민하는 교육자로서 반드시 사업이 성사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1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해 “아이들의 일자리를 위해 광주 사회가 현대차 공장 설립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자”며 눈물로 호소했다. 또 이날 학생들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달라”며 지역사회의 동참을 요구했다.

앞서 이들 학교의 교장단은 지난 2일 호소문을 내고 “광주에 현대차 생산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부품공장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힌 지식과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풀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또 16일에는 광주지역 208개 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총연합회와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노인회 연합 단체인 노인회광주시연합회도 잇따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기원한다. 광주시민단체총연합회 이장재 회장은 “우리 청년의 미래와 꿈과 행복한 삶을 위해 광주시는 노동계와 대타협을 통해 현대차 투자 유치를 꼭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회광주시연합회 강주수 사무부장은 “광주시는 인내심을 갖고 조정을 하고, 그 과정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잘 알려달라. 노동계에 대립하는 모습을 버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광주지역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도 조만간 ‘광주형 일자리’



수능 한 달 앞 ... ‘엄마의 기도’ 2019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15일 광주시 서구 무각사에서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최근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와 협의를 통해 진행되며 ‘주 44시간 근무 초임 3500만원’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시민의 생각을 직접 듣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800억대 전남 양식장 피해보상 ‘청신호’

남해수산연 “폐사 원인 질병 아닌 고수온” ... 조사결과 회신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여름, 전남 양식장 어패류 집단 폐사 원인이 고수온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지난 6일 전남을 휩쓸고 간 태풍 ‘콩레이’에 의한 양식어가 피해액은 200억원을 넘어섰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9월 발생한 전남지역 양식장 어패류 피해 원인에

대해 수산당국이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를 해당 시·군에 회신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남해수산연구소는 정밀조사를 토대로 “질병 부문이 크게 없었고 고수온 상황과 함께 아침-저녁 수온편차가 컸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는 전남 양식장 집단폐사 원인이 질병이 아니라 고수온과

수온 편차라는 자연재해 때문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해당 시·군은 오는 18일까지 복구계획서를 전남도에 제출하고, 전남도는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복구계획서를 점검한 뒤 해수부에 보고한다. 해수부는 어업재해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수온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해수산연구소의 정밀검사 결과는 고수온 인정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최종 확정에는 시군과 도를 거쳐 해수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수온이 판정될 경우 피해 복구비의 50% 국가보조, 30%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양식어가와 해당 시·군, 전남도는 고수온 인정여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올 여름 전남지역에서 고수온으로 추정된 양식장 피해는 7개 시·군 695어가에서 8573만마리(피해액 817억원)가 신고됐다. 신안지역이 506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완도 190억원, 고흥 65억원, 강진 38억5000만원, 장흥 13억원 등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알립니다

광주일보 창사 66주년 기념 음악회

빈·베를린 필 ‘필하모닉스’ 공연

12월17일 광주문예회관
티켓오픈 10월18일 오후 2시

광주일보는 창사 66주년을 맞아 지난 6월 리처드 용재 오닐이 참여한 ‘양상블 디토’ 공연에 이어 세계 정상급 클래식 연주자들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번엔 초청된 아티스트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과 빈 필 단원으로 구성된 ‘필하모닉스 (PHILHARMONIX·비엔나 베를린 뮤직 클럽)’입니다. <관련기사 16면>

베를린 필 악장 노아 벤딕스를 비롯해 세바스티안 거틀러(바이올린), 티 로페히너(비올라-빈 필), 스테판 콘츠(첼로-베를린 필), 오돈 라츠(더블베이스-빈 필 수석), 다니엘 오펜잠머(클라리넷-빈 필 수석), 크리스토프 트라슬러(피아노) 등 7명으로 구성된 ‘필하모닉스’는 정통 클래식과 팝송 등 다양한 장르 연주를 통해 클래식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연주 레퍼토리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번’,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록그룹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스티브의 ‘잉글리쉬맨 인 뉴욕’ 등입니다. 광주일보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 2018 필하모닉스(비엔나 베를린 뮤직 클럽) 광주 공연

- 일시 : 2018년 12월17일(월) 오후 7시 30분
-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최 : (주)광주일보사, (사)아시아문화, WCN
- 티켓 : R석 8만8000원, S석 6만6000원, A석 3만3000원
- 예매 : 티켓링크(1588-7890)
- 문의 : 062-220-0541

국제경영교육 재인증 획득

더 큰 세상을 향한 열정과 꿈, 전남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이 함께 합니다!

경영대학

- 전 세계 106개교에 걸친 Exchange Student Program
- 해외 우수대학과의 Double Degree Program
- 글로벌 현장 감각을 위한 Business Field Program

AACSB ACCREDITED

-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가 부여하는 국제경영교육인증
- 미국 주요 대학 학장들이 설립(1916년)한 비영리 인증기관, 다양한 분야의 교육지표(교수진 역량, 우수학생 유치, 우수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 인증
- AACSB 2012년 최초 인증, 2018년 재인증 획득

경영전문대학원

- 국제화 프로그램
Global MBA의 100% 영어 강의
- 전문 트랙별 MBA 교육 프로그램
실무핵심 전문 경영 인력 양성을 위한 재우회계, 빅데이터, 기술경영 트랙 운영
- Capstone Project를 통한 문제해결중심교육
기업의 실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기업 환경에 맞는 현장 문제 해결 중심 교육 제공